

값높은 평가, 최상의 믿음

2015 년 4 월 초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어느한 공장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을 보아주시였다.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느라 그 누구보다 바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천금같은 시간을 내시여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주시려 공연장소에 나오시자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감격에 겨워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를 올리였다.

이윽고 공연이 시작되였다.

공연은 당의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갈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반영한 다채로운 종목들로 고조를 이루었다.

허나 그때까지만 하여도 그들은 자기들의 공연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큰 기쁨을 드리게 될줄은 알지 못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제일먼저 박수도 쳐주시고 공연을 보니 사상성은 두말할것 없다고, 막 가슴이 찢릿하다고 하시면서 오늘 진행한 공연을 그대로 촬영해서 올려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그러면 자신께서 힘이 들 때마다 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값높은 평가와 분에 넘치는 영광을 받아안은 공장의 일군들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심정이 어떠했으랴.

그야말로 이 세상의 행복을 통채로 받아안은것만 같은 걱정이 그들의 가슴에 차올랐다.

당정책이 맥박치고 공장애가 차넘치는 공연을 통해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기수, 돌격대가 되려는 공장로동계급의 고결한 충성의 마음을 읽으시며 그렇듯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그 시각 공장의 일군들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당정책관철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겠습니다.)